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PCA 노회 뉴욕 시찰회 주관 찬양제(오늘)
12월 2일 주일 오후 5시에 뉴욕 남교회에서 뉴욕 시찰회 주관으로 찬양제가 있습니다.
- 12월 구역강사 훈련 모임 안내
오늘 찬양제 행사 관계로 12월 구역강사 훈련 모임은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 12월 당회 안내
12월 당회가 6일 목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 친교 안내
오늘 친교는 베이사이드 구역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다음 주 친교는 플러싱 구역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12월 봉사위원

| 일자 | 주일기도 | 수요예배 | 친 교 | 안 내 |
|-------|------|------|-------|-----|
| 12/02 | 섭 | 김유순 | 베이사이드 | 한순차 |
| 12/09 | 송명건 | 이경희 | 플러싱 | 한순차 |

예배 및 모임 안내

| 모임 | 시간 | 장소 |
|----------|-------------------------|----------|
| 주일예배(1부) | 주일 오전 11시 30분 | 지하 친교실 |
| 주일예배(2부) | 주일 오후 1시 15분 | 본당 |
| 수요기도회 | 수요일 오후 8:00 | 본당 |
| 토요새벽기도회 | 토 새벽 6:00 | 본당 |
| 유,초등부 | 주일 오후 1:15 | 주일학교 예배실 |
| 중,고등부 | 주일 오후 1:15 | 중고등부 예배실 |
| 성가연습 | 주일 오전 11시 | 성가대실 |
| 성경공부 |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 1층 친교실 |
| 새 가족반 | 주일 예배 후 | 1층 친교실 |
| 한글학교 |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각 교실에서 |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성한 눈(Good eyes)

본문: 누가복음 11장 45-54절

기도제목: 1. 성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2. 모든 문제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심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품이 온유하시고 부드러운 분이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독한 말씀을 종교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욕을 먹고 있나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앞 부분 성한 눈의 비유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들을 비판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눈이 성한 눈이 아니라 상한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율법사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 퍼부었던 저주의 말씀들을 “화 있을진저” 3가지의 책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책망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사들이 자기도 지키기 어려운 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씌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습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께서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율법사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던 분이십니다.

두 번째 책망은 무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수 많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자신들은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가꾸면서 나는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과는 다르다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모든 피를 너희가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기에, 너희가 결코 너희 조상들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저주 하셨습니다. 오직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결국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와 회개만이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을 통한 진실한 회개와 변화가 없기에 그들의 무덤 앞에서 굳은 결심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결국 조상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임을 예언하시고 결국 선지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를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주하신 내용은 **열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열쇠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물쇠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열쇠가 잘못된다면 어떤 것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담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지식의 열쇠’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물쇠로 닫혀 있는 것을 열쇠로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담당하는 율법을 잘 해석하고 설명함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쇠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구원에 문도 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마16:18~19절) 여기에서 천국의 열쇠가 나옵니다. 천국 가는 열쇠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나가는 말

이 시대의 율법사가 누구일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이 잘못되어 있다면, 성한 눈이 아니라면, 그 안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없기에, 근본적으로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에 아무리 발바등을 치고 이런 저런 방법을 사용해도 결코 생명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지적하신 3가지 문제 중, 무덤, 열쇠는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한 눈을 가진 자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빛이 비취고 있는지요?**

지난 주 헌금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12월 행사안내

- 2일(주일) = 노회 시찰회 찬양제(뉴욕 남교회 5시)
- 6일(목) = 12월 당회
- 9일(주일) = 12월 구역강사 훈련 모임

구역별 선교사

| | | | |
|----------|----------|--------|----------|
| 롱아일랜드 구역 | 베이사이드 구역 | 플러싱 구역 | 우드사이드 구역 |
| 순회 선교 | 우간다 | 브라질 | 인도 |

담임목사 정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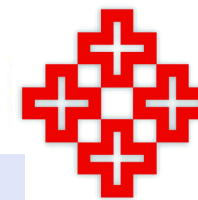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주일예배

| |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 수요예배 | |
|----------------------------------|--|-------------------|----------|
|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 찬양과 기도 사무엘상 강해 | |
| ▲ 송영 Invocation | 찬양대 Chorus | | |
|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 다같이 Together | | |
| ▲ 찬 송 Hymn | 43장 | | |
|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 |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43번(마태복음 6장) | | |
| 찬 송 Hymn | 200장 | | |
| 기 도(Prayer) | 송 섭 집사 | | |
| 성 경 Scripture | 누가복음 11장 45~54절 | | 토요 새벽기도회 |
| 찬 양 Praise | 세이비어 찬양대 | | 호세아 강해 |
| 설 교 Message | 성한 눈 | | |
| ▲ 헌 금 Offering |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 |
| ▲ 찬 송 Hymn | 327장 | | |
| ▲ 축 도 Benediction | 정요한 목사 |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
| 교회소식 Announcement | 인도자 | | |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